

#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美國

—Mr. Penrose와 *The Algerine Captive*를 중심으로—

柳 明 淑

〈서울大 英文學科〉

## I. 실 마 리

초기 미국문학을 다루는 비평은 문학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따옴표 혹은 이태리체로 강조되는 Americanness, 즉, 미국적 특성을 규명하고 주장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느낌을 표명하는 것은 미국적인 것에 대한 집착 자체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아니다. 예술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은 인정하면서 “정치적 차원을 떠나 미국생활을 묘사한 첫번째 장시”<sup>1)</sup>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을 비웃기는 쉬운 일이나, 우리 문학연구에서도 우리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론되는 작품이 있을 터이고, 실제로 미국적 혹은 한국적 전부에 대한 관심이 그 나라 문학연구에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Americanness에 대한 집착은 이러한 일반론을 넘어선 타당한 근거가 있다. 미국문학에서의 아메리카는, 예를 들어, 한국문학에서의 한국보다 그 비중이 훨씬 크다. 이는 미국문학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적어도 유럽인의 입장에선)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이민들이 그들의 새로운 경험을 정의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미국문학 비평에서 Americanness에 대한 논의는 피하려고 해야 피할 수 없는 이슈이고, 아메리카는 국가적 차원을 떠나 신화적 상징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미국문학에서 Americanness의 비중이 큰 만큼 잘못된 운용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sup>2)</sup> 첫째, Americanness라는 보편적 명제를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은 경우 個個작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그 내용조차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다. 다른 어느 나라 문학보다 미국문학에는 “위대한 미국적 작품”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는 미국적 특성을 포괄하는(포괄한다고 특정 비평가가 믿는) 어떤 작품을 정해 놓으면 Americanness를 정

1) Samuel Law의 “Winter Display'd”(1784)에 대한 Lewis Leary의 논평. *Soundings*(Athens: Ohio UP, 1975) 19.

2) 이러한 문제점들은 Carl R. Kropf이 “The Nationalistic Criticism of Early American Literature”에서 지적하고 있다. *Early American Literature* 18(1983): 17-30.

의하기도 용이하고 다른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sup>3)</sup> 이렇게 했을 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작품의 특수성보다 Americanness라는 보편적 명제에 대한 기여도, 문학적 가치보다 역사적 가치가 중시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Americanness에 대한 집착이 유럽과의 근본적인 결별을 전제로 할 때 생기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초기 미국문학에서는 특히나 유럽의 문학관습의 영향이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즉, 유럽의 문학관습을 주로 사용하는 작품은 아예 무시하거나, 미국적 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은 유럽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다.

本考에서는 형식의 논의를 포함한 個個作品의 특수성을 연구하는 것이 Americanness를 정의하는 올바른 길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럽과의 관계를 추적해야 한다는 것을 두 편의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실례를 들기 전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문학적 관계에 대해 약간의 부연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 II. 유럽과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유럽인들에게 있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였다. 그러나 그 경험을 글로 전달하는 일은 유럽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J. Hector St. John de Crèvecoeur는 아메리카를 유럽에 비해 ~이 없다는 식으로 묘사한다.

이곳에는 귀족가문도, 궁정도, 왕도, 주교도, 교회재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유난히 눈에 띄는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일도, 수천을 고용하는 큰 공장도, 극도의 사치와 그에 따른 세련됨도 없다.<sup>4)</sup>

이렇듯 직접적인 비교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유럽은 초기 미국문학의 도처에 자리잡고 있다. E.H. Gombrich의 지적대로 人間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이미 익숙한 틀을 통해 그것을 보기 때문이다.<sup>5)</sup> Columbus가 신천지를 유럽문학에 흔히 나타나는 지상낙원으로 묘사하고 이곳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나이팅게일 소리를 듣는 듯 착각했다는 것이 그 예이다.<sup>6)</sup>

그러나 유럽과의 결별이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Columbus의 예에서 나타

3) 최근에 호평을 받은 비평서를 예로 들자면, Sacvan Bercovich의 *The Puritan Origins of American Self*는 Cotton Mather의 *Magnalia Christi*를, William C. Spengemann의 *The Adventurous Muse*는 Richard Henry Dana의 *Two Years Before the Mast*를, Richard Slotkin의 *Regeneration Through Violence*는 Mary Rowlandson의 인디언 포로기와 John Filson의 Daniel Boone 전기를 각각 대표적 미국작품으로 내걸고 Americanness를 정의한다.

4) J. Hector St. John de Crèvecoeur,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1) 67.

5) E.H. Gombrich, *Art and Illusion* (Princeton: Princeton UP, 1969) 3-30.

6) Howard Mumford Jones, *O Strange New World* 14-15.

나뭇 익숙한 틀은 새로운 대상의 리얼리티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유럽의 기존형식에 담았을 때 생기는 괴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메리카에 대해 글을 쓰는 모든 작가들의 피할 수 없는 숙제였다. 이 괴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유럽의 형식을 아메리카의 경험에 맞게 변형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형식을 창출하는 데 있다. 물론 창조적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작가들이 창출해내는 것이 무형식의 형식이다. 그렇다고 초기 미국문학에서 기존의 형식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을 도외시한다면 가장 미국적인 경험의 하나를 제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William C. Spengemann은 미국문학이 “변화의 본질과 의미”<sup>7)</sup>를 다룬다는 점에서 낭만주의 문학이라고 주장하는데, 내용의 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식의 면에서도 그렇다. 차이가 있다면 유럽에서는 Wordsworth와 같은 천재가 불란서혁명과 같은 대사건을 계기로 전통적인 문학관습을 탈피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지만, 아메리카에서는 모든 작가들이 유럽의 문학형식을 극복하여야 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二流의 모작도 못되고 실패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초기 미국소설에 있어 유럽의 형식과 미국의 實在의 조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적 장르, 년 획선 산문 서술형식의 전통이다. 미국문학은 신대륙을 탐험하고 개척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온 사람들이 유럽의 독자를 위해 지리·토양·생태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기행문이나 이민을 권장하기 위한 팜플렛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기능적 차원에서도 형식의 변화가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Captain John Smith의 *General History of Virginia...*는 역사라기보다는 자서전이며 자서전이라기보다는 로맨스이다. 로맨스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기사가 아닌 庶民출신의 Smith요, 그가 물리쳐야 할 龍은 인디안 추장 Powhatan으로 顯身한다. 탐험가들에 이어 등장한 청교도들의 이민은 로맨스의 quest를 내면화하여 靈的 quest를 글의 체재로 한다. 교회사, 성인전, 靈的 자서전의 주인공은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신앙적 결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록이다. 따라서 인디안도 약속의 땅의 실현을 방해하는 악마적 존재로 나타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적 장르로 일컬어지는 포로기(captivity narrative)가 생기는 것이다.

초기 미국문학에서 획선이 나타나는 18세기말이 되면 유럽의 형식과 미국의 경험 간의 괴리보다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미국적 산문형식이 획선을 부인하고 죄악시하는 전통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초기 미국소설에는 유럽의 소설형식과 미국의 산문형식이 불가피하게 공존하는데 유럽의 관습이 제공하는 편리한 틀과 신세계의 實在와의 괴리, 그리고 산문의 서술형식에서 획선으로의

7) William C. Spengemann, *The Adventurous Muse*(New Haven: Yale UP. 1977) 2.

8) 년 획선 산문서술형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Bercovich의 *The Puritan Origins of American Self*(New Haven: Yale UP. 1975)와 Slotkin의 *Regeneration Through Violence*(Middletown, Conn.: Wesleyan UP. 1973)이 도움이 되었다.

건이에 따른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 유럽의 작가들이 안고 있던 문제에 덧붙여 이 두 가지 문제가 첨가되었기에 초기 미국소설에서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예술을 만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1969년에 재발견된 William Williams의 *Mr. Penrose: The Journal of Penrose, Seaman*은 유럽의 형식과 미국적 實在, factual narrative 전통과 픽션을 조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적 가치는 물론 미국문학의 canon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유보되고 있는 것도 매우 시사적으로 느껴져 소개하고자 한다.

### III.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 *Mr. Penrose*

*Mr. Penrose*를 처음 대하면 18세기에 유행한 1인칭 서술의 표류기 형식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Daniel Defoe의 *Robinson Crusoe*(1719)의 아류로 보기가 쉬울 것이다. 실제로 *Mr. Penrose*가 *Robinson Crusoe*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플롯의 세부내용까지도 부합되는 점이 많다.<sup>9)</sup> Crusoe와 Penrose 모두 집안에서 법률공부를 시키려 하는 데 반발, 친구와 선원이 되기 위해 가출한다. 주인공을 바다로 끌어낸 친구는 그 역할을 끝내고는 사라지고, Crusoe와 Penrose는 혼자서 선원생활을 시작한다. 얼마되지 않아 Crusoe는 알제리아에서 노예로, Penrose는 스페인의 포로로 여러 해를 보내는데, 이 부분이 짧게 처리되는 점도 같다. 역경을 겪는 동안은 집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만 자유의 몸이 되고 난 후에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Penrose 48)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선원생활을 하다가 사회와 완전히 절연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도 같다.

Crusoe의 무인도생활과 Penrose의 생활은 유사할 뿐더러 사실적이며 사무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같다. 동물을 길들여 외로움을 달래고(앵무새가 공통으로 나타남), 식탁·의자·파이프를 만들고, 거처를 城(Crusoe 121; Penrose 108)이라고 부르는 점 등이 그 예이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Crusoe와 Penrose 둘 다 비국교도 쪽에 가까운 신교도로 “神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Crusoe 107; Penrose 72),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자기반성이 강하여, “과거의 악한 생활”을 상기하면서 자신이 몸 담았던 사회가 현재의 고립보다 “더 몹쓸 감옥”(Crusoe 104)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점도 같다. 또 한 가지 신교도적 특성은 시간관념에 철저하다는 것이다. 둘 다, 처음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세월의 흐름을 기록하고, 종이를 구한 후에는 일기를 쓴다. 심지어는 28년간 표류된 장소에서 머문다는 점도 같다.

9) 두 소설에서의 인용은 William Williams, *Mr. Penrose: The Journal of Penrose, Seaman* (Bloomington: Indiana UP, 1969)와 Daniel Defoe, *Robinson Crusoe: An Authoritative Text* (N.Y.: Norton, 1975)에서 하고 본문에서는 각각 *Penrose*와 *Crusoe*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Mr. Penrose*는 *Robinson Crusoe*의 단순한 모작은 아니다. 작가는 *Mr. Penrose*를 처음부터 표류기가 아닌 정착기로,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유토피아의 장르로 구상했고, 따라서 피상적인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r. Penrose*와 *Robinson Crusoe*의 근본적인 차이는 前者에서 아메리카가 중요하듯 後者에서 무인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Crusoe*는 28년의 무인도생활 끝에 구조되어 영국으로 돌아가 결혼하고 자식도 얻는다. 그러나 *Penrose*는 표류했던 장소——무인도가 아니라 니카라과아 해변으로 밝혀짐——에서 原住民과 결혼하여 자식을 얻고, 영국으로 돌아갈 여러 번의 기회를 뿌리치고 28년째 되던 해에 그곳에서 죽는다. *Robinson Crusoe*가 主人公의 다른 모험담을 예고하며 끝을 맺는 反面에 *Mr. Penrose*는 어떻게 한 영국인 선원이 *Penrose*의 일기를 입수해 출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끝난다. 이러한 부연설명은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흔히 사용되던 수법이기도 하고, E.A. Poe의 “*Ms Found in a Bottle*”이나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의 경우처럼 1인칭 서술자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수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Mr. Penrose*의 경우 영국인 선원이 등장하는 것은 *Penrose*가 의식적으로 아메리카를 선택했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Mr. Penrose*가 표류기가 아닌 정착기라는 사실과 정착의 땅인 아메리카의 핵심적 역할이 *Robinson Crusoe*와의 결별을 필연적으로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둘 사이의 피상적인 유사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Crusoe*와 *Penrose* 둘 다 가출하는 것은 같으나 전자가 사회에서 일탈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의무”(Crusoe 9)를 저버린 데 대한 죄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반면에, *Penrose*는 우선 편모 슬하이고 재혼한 어머니가 “항상 계부 편을 들었기”(Penrose 38) 때문에 가출할 때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Penrose 39)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죄의식은 없다. *Penrose*에게는 영국으로 돌아갈 필연성이 없는 것이다.

유럽을 버리고 아메리카를 정착의 땅으로 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공동체를 이뤄 나간다는 점에서 *Mr. Penrose*를 William Bradford의 *Of Plymouth Plantation: 1620-1647*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우연치고는 재미있게 이도 역시 28年間の 기록이다. 물론 둘 사이의 뚜렷한 차이는 있다. Plymouth Colony는 해체되는 과정이고 그에 따른 Bradford의 개탄으로 끝을 맺는 반면 *Penrose*의 공동체는 결성까지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Penrose*의 공동체가 Plymouth Colony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인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Penrose*는 Bradford처럼 처음의 순수했던 시작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

10) Williams가 *Of Plymouth Plantation*을 읽었느냐의 문제는 추측으로 끝날 수 밖에 없지만, 그가 보스턴에 체재하는 동안 원고가 보스턴의 Old South Church 도서관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다.

Harry와 그의 누이하고만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Penrose 174)) Penrose의 공동체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암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비록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Bradford도 Penrose도 유럽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두 편에서 다 유럽은 과거요 타락의 땅이요, 아메리카는 현재요 재생의 땅이다.

Mr. Penrose와 *Of Plymouth Plantation*의 또 다른 유사점은 Penrose와 Bradford의 성격과 역할에 있다. 둘 다 종교적이긴 하지만 편협하거나 儀式 爲主가 아니고, 평범한 듯하면서 깊은 이해를 드러내 보인다. Penrose가 친구 Godart Somer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목은 Bradford가 친구 William Brewster를 애도하는 대목과 흡사하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둘 다 자신이 키운 공동체의 가부장의 역할을 하면서 주인의식은 없다는 것이다.<sup>11)</sup> Crusoe가 무인도에 갇혀 있는 신세임을 인식하면서도 그곳을 자신의 “王國”(Crusoe 80)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Bradford와 Penrose는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前者는 Plymouth Colony의 모세로, Penrose는 그의 공동체의 노아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노아와의 비교가 다소 엉뚱한 듯 하지만 Penrose의 표현을 빌었을 뿐이다. Williams가 *Robinson Crusoe*와는 상당히 다른 소설을 구상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Crusoe를 회개로 이끄는 지옥 유희불 꿈 대신에 Penrose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다.

이즈음 나는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다. 雨期라 모두 물에 잠겼다고 [꿈 속에서] 생각했다. 그래서 카누를 타고 동굴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 이의 노아처럼 나는 땅을 찾아 헤맸지만 멀리 작은 언덕이 보일 따름이었다. 나는 그것을 향해 전력을 다해 노저어 갔다. 꿈에서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 안간힘을 쓰다 깨어났고 꿈인 것을 알고 안도했다. 그 꿈이 곧 어떤 의미에서 실현되리라 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Penrose 80)

꿈이 어떤 의미에서 실현되었다는 말은 홍수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 일어난 사건——인디안 남매와의 만남——이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다는 뜻인 것 같다. Bradford가 바로의 땅(영국)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끈 모세로 비유되듯, Penrose가 스스로를 노아로 비유하는 것은 유럽의 상징적인 침수를 전제로 하여 신대륙에 작은 공동체를 이룬 자신의 역할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sup>12)</sup>

Mr. Penrose가 *Robinson Crusoe* 뿐만 아니라 *Of Plymouth Plantation*과도 다른 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神의 성격과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Crusoe의 하나님은 산업혁명과 계국주의적 팽창을 가능하게 한 영국 중산층의 하나님이다. 죄인에게

11) Bradford가 원했다면 Pennsylvania의 William Penn처럼 Plymouth Colony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었고, 인디안과의 교역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Francis Murphy, “Introduction” to *Of Plymouth Plantation: 1620-1647* by Willam Bradford(N.Y.: The Modern Library, 1981) xiv.

12) 이러한 비유는 Cotton Mather의 *Magnalia Christi*나 기타 청교도 성인전에서 흔히 사용된다.

는 지옥의 유향불로 겁을 주지만 일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선택받은 者들에게는 물질적 필요로 축복해 준다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공식——지옥 유향불의 꿈, 죄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에 따른 물질적 축복——이 *Robinson Crusoe*에서는 그대로 나타난다. 아울러 이러한 종교관이 안고 있는 모순까지도 잘 드러난다. *Crusoe*가 英國社會를 현재의 고립보다 “더 몹쓸 감옥”이라고 말하면서 귀국할 기회만 기다린다가, 재물을 악의 근원으로 타기 하다가 쓸모 있게 되자 챙긴다든가, *Friday*의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육체의 자유에는 무감각한 것 등이 그 예이다.

*Of Plymouth Plantation*의 하나님은 나쁜 의미에서 청교도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選民의 하나님이다. *Bradford*는 인디안들이 역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상당히 동정적으로 묘사하고 영국인들의 간병이나 기타 구제 행위를 옳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가호로, 영국인들은 한 명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전염된 사람이 없었다”(303)고 자축한다. 더우기 인디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은 없다.

*Mr. Penrose*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도 選民에게만 복을 내리는 하나님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Penrose*의 말을 빌면 “공홀한”(Penrose 61) 하나님이다. 따라서 지옥 유향불의 꿈도, 회개의 순간도, 선민의식도 없다. *Penrose*의 공동체에서는 일종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기독교의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인디안을 절멸시키거나 노예화했을 때 기독교의 의미는 야만으로 전락했다고 믿는다: “[유럽의 기독교인들] 한 우상을 다른 우상으로 대체한다는 명목 아래 인디안들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면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으니 진짜 악명 높고 비인간적인 야만인은 그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Penrose 117). *Penrose*에게는 추상적인 교리보다 휴머니즘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위——조난 당한 배를 도와주는 등——이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방법이다.

*Mr. Penrose*가 모델이 되는 두 작품과 두번째로 다른 점은 인디안에 대한 태도이다. *Crusoe*는 *Friday*를 만났을 때 그의 “주인님”(Crusoe 161)이 된다. 이름을 묻지 않고 *Friday*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도 그의 人格을 무시한 결과이다. *Crusoe*에게는 *Friday*가 감정과 사고가 가능한 인간이요, 과거와 가족이 있는 어떤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앵무새보다 조금 나은 의로움을 덜어 주는 방편일 따름이다. *Bradford*의 경우, 인디안은 조심스러운 교역의 대상이지 노예화하거나 절멸해야 할 악마의 종자는 아니다. 실제로 *Plymouth Colony*의 *Pilgrim*들은 *Massachusetts Bay Colony*의 청교도들보다 인디안 문제나 종교적 문제에 있어 훨씬 더 포용력이 있었다. 전자가 후자에 흡수·병합된 것이 인디안들의 운명을 한결 비참하게 만든 遠因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디안과 어느 線 이상으로 교류한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Mr. Penrose*에서는 백인의 종족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인종차별도 배제한다.

Penrose가 4년간 혼자 지내고 두 인디안 남매를 만났을 때, 그는 Crusoe와는 달리 그들의 이름을 묻는다. Ayasharre와 Yaluta라는 이름을 Harry와 Luta로 바꿔 부르지만 이는 영국 식이라기 보다는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서이고, 인디안들도 같은 이유로 Penrose를 Penoly로 바꿔 부른다.

Penrose는 이렇듯 인디안을 주종관계가 아닌 일대일 인간으로 만나고,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Harry의 반대의견을 수용하기도 한다. 얼마 후에 Harry가 Luta와의 결혼을 권할 때 Penrose는 조금도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도리어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한 Penrose와 Luta의 결합이 혈기왕성한 백인청년이 생리적인 필요에 의해 원주민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Penrose는 Luta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고 그 결혼은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한”(Penrose 92) 것이다.

그렇다고 백인, 특히 Anglo-Saxon계가 혼혈을 적극 거부했다는 史實을 없었던 듯이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화란인으로 Penrose의 공동체에 합류한 Godart Somer도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스코틀랜드인 Norman Bell은 끝까지 인디안 여인과의 결합을 거부한다. 다만 이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반박이 인디안 여인의 詩的인 언어를 통해 나타날 뿐이다.

먼 바다를 건너온 님이여, 당신의 살갗은 우리보다 흰다. 밤중에 비추는 달빛처럼, 당신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당신의 행위보다 더 회기를 기대하는지요? 내가 무엇을 알고, 듣고, 보는데요? 바람의 목소리가 숲과 해안을 가로지르며 내 형제자매가 당신들과 살과 피를 섞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Penrose 244)

인디안과의 결혼이 백인의 편의에 의해 원주민과 결합하는 것이 아닌 것 처럼 백인이 인디안화하는 과정에서의 결합도 아니다. 백인과 인디안의 결혼은 서로가 형제임을 받아들이는 의식인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점은 Mr. Penrose가 18세기에 유행한 Noble Savage의 개념에 관념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Penrose는 표류했을 때 Noble Savage를 만나리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식인풍습이 있는 인디안을 만날까 봐 두려워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를 광산으로 끌고 가 노예로 부려 먹을 스페인인이다. 그가 경험으로 알게 된 인디안은 신대륙의 모든 가치——순수성, 관대함, 인간애——를 상징하고, 스페인이 대표하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惡——탐욕, 잔인성, 비인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디안이 백인을 먼저 공격한 경우라도 근원적으로 가해자는 “기독교인”(Penrose 130)이라는 것을 Penrose는 확신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 작품에서 Penrose를 제외한 모든 백인이 악당이라는 흑백논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화란인 Godart Somer는 인디안을 죽인 술취한 백인을 썩 죽이고 유럽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남는다. 유럽을 변화시키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도덕적 선택에 의한 개인의 변화는 그만큼 용이하다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는 적국인 스페인인까지도 “우리



모임의 선택된 자”(Penrose 291)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선택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타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가 받아 들여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백인도 인디안도 흑인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Mr. Penrose의 유토피아는, 작게는 인종차별의 문제 크게는 인간성의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안이한 해결이며, 결국은 도피주의적 이상향을 상징함으로써 현실의 인종문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토피아라는 장르 자체가 회랍어의 “outopia,” 즉, “no place”라는 뜻이므로 미대륙에서 이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나 미국소설에서의 리얼리티는 “물질적 세계 뿐만 아니라 생각과 꿈의 세계”<sup>13)</sup>도 다룬다는 점에서 리얼리티의 정의를 지나치게 한정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더우기 유토피아를 설정하는 작가의 의도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이고, Mr. Penrose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인종문제의 현실은 한 흑인노인의 입을 통해 제기된다. 아프리카대륙에서 납치되어 와 노예로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이어 온 이 노인은 도피처를 찾던 중 Penrose의 공동체에 오게 된다. 그는 과거의 서술을 통해 노예제도의 모든 비인간적 장치를 고발하고 백인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는다. Friday처럼 그는 백인과의 만남에서 이름을 잃었다. 심지어는 영국인의 노예일 때는 Primus로, 스페인인의 노예일 때는 Diego로, 이름이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래 이름 Qameno(Quammeno)를 잊지 않는다.

이 흑인노인은 당연히 여러 인종이 평화롭게, 평등하게 산다는 사실에 회의적이라 Penrose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머물겠다는 확답을 피한 채 얼마 동안 관망을 계속한다. Qameno로 Penrose의 공동체에 합류하기로 선택하면서도 그는 Penrose와 같은 백인이 있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한다. 그는 결국 Penrose가 “善人”인 것은 이미 유럽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내 고향과 흡사한 숲과 바위 뿐인 가난한 땅에 와서 살면서 善人이 된 것으로 생각되오.  
(Penrose 349)

“가난한 땅”——이 표현은 Penrose의 유토피아의 성격을 규정해 준다. 그가 선택한 땅은 앞에서 인용한 Crèvecoeur의 목록대로 “~이 없다”로 정의되는 아메리카이다. 이곳은 한 愛蘭人 선장이 “이 황야에서 평생을 보내고 난 후에 무엇이 남겠는가”(Penrose 216)라고 하며 Penrose에게 귀국을 권할 정도로 물질적 풍요가 없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을 택한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을 빌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몸과 마음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자들이다. Penrose가 소설의 말미에 얻은 딸의 이름을 아메리카(Penrose

13) David H. Hirsch, *Reality and Idea in the Early American Novel*(The Hague: Mouton, 1971) 47.

248)라고 붙였을 때 그는 그 의미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Penrose는 Bradford처럼 약속의 땅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표류해 온 “가난한 땅”이 약속의 땅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가 아메리카에 머문 이유를 “내 영혼의 복락”(Penrose 333)을 위해서였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이 외따른 황야에 은혜로운 성찬을 차려주신”(Penrose 302)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Spengemann은 Bradford의 *Of Plymouth Plantation*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 작품이 “유럽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이민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단순하지만 중대한 사실이 史家の 意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사료를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다”<sup>14)</sup>라고 말한다. *Mr. Penrose*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Penrose가 아메리카에 머문다는 단순한 결정이 *Robinson Crusoe*의 영향을 세세한 부분까지 변화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탈바꿈에 도움이 된 것이 *Of Plymouth Plantation*과 같은 미국적 경험을 재재료 한 산문형식이었다. 그러나 *Mr. Penrose*는 이러한 영향도 수렴하여 변형시킨다.

이 소설을 재발견한 David Howard Dickason은 *Mr. Penrose*가 1783년에 쓰여졌다는 이유로 이를 미국 최초의 소설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그러나 年代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가치나 전통적 소설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형식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가치가 유럽의 그것보다 우월하며 그 형식이 온전한 全體를 이룬다는 점에서 *Mr. Penrose*를——첫번째 소설이나 아니냐를 떠나서——중요한 초기 미국소설의 하나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Mr. Penrose*가 재발견되고 20년이 다 되도록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어느 정도 이 소설을 소개한 Dickason의 책임이다. 그는 *Robinson Crusoe*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Mr. Penrose*의 독창성을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다르고 그 차이가 이 소설을 미국문학으로 보는 근거가 됨을 보여주지 못하고, 인디안들의 풍부한 표현력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인간이라기 보다는 Noble Savage라는 전형으로 단순화시키고, Penrose가 아메리카에 남겠다는 의지를 유럽문학에 흔히 나타나는 전원적 유토피아로의 도피로 아메리카의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실패를 단순히 Dickason만의 무능력의 탓으로 돌리기엔 어딘지 석연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 *Mr. Penrose*에 非미국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이 작품을 읽은 상당수의 비평가들이 확연히 미국적인 요소도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미국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Royall Tyler의 *The Algerine Captive*을 살펴 봄으로써 현재 미국 문학연구에서 미국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4) Spengemann, *The Adventurous Muse* 33.

15) Dickason, “Introduction” to *Mr. Penrose* 13.

#### IV. 유럽에서 미국으로 : *The Algerine Captive*

Royall Tyler는 *The Algerine Captive*(1757)의 서문에서 Tyler는 주인공인 Updike Underhill의 입을 통해 영국소설을 수입해다가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국의] 풍습을 보여주는”(xii) 그런 책을 쓰자고 주장한다.<sup>16)</sup>

이러한 예술적 독립성의 강조는 *The Algerine Captive*가 미국적인 작품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 같다. Roger B. Stein은 Tyler가 “序文에서 당당하게 미국인 남녀가 읽고 있는 유럽 문학형식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게 주어진 여러 형식을 조합하기도 하고 풍자하기도 하면서 꼭 짜여지진 않았지만 유연한 자기 나름의 형식을 만들어 낸다”<sup>17)</sup>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의도와 실재를 혼동한 것이 아닐까. Tyler가 유럽의 문학형식과 미국적 實在間의 괴리를 의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는가 하는 문제는 *Mr. Penrose*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변화의 예가 있는가를 살펴본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

*The Algerine Captive*가 진공상태에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Tyler가 미국의 풍습을 보여주기 위해 택하는 형식은 피카레스크 풍자이다. 이러한 면을 지적하는 것은 이 소설의 독창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Mr. Penrose*도 *Robinson Crusoe*의 모작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큼 세부사항까지 유사 하면서 아메리카에의 정착을 구심점으로 유사점을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근본적인 결별을 한다. 문제는 *The Algerine Captive*에서도 피카레스크 풍자라는 유럽 형식이 미국의 實在를 그리는 과정에서 변형하는가, 또 *Mr. Penrose*가 *Robinson Crusoe*의 모순을 암시 하듯이 피카레스크 풍자가 안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는가이다.

*The Algerine Captive*의 주인공 Updike Underhill의 이름은 피카레스크 풍자에 어울리는 作名이다. up과 under, dike과 hill의 약간 과장된 對比는 풍자가 전제로 하는 두 세계, 풍자 당하는 대상과 기준이 되는 규범을 함축한다. Underhill이라는 이름이 적절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주인공의 先祖로 소개되는 John Underhill이라는 실재인물에 있다. 인디안과의 전투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청교도들과의 교리적 차이로 배척을 받는 Underhill의 후손이라면 뉴 잉글랜드의 풍자가의 이름으로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풍자가로서의 Underhill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의 풍자의 화살은 학생들을 직접

16) 이 소설에서의 인용은 Royall Tyler, *The Algerine Captive: or the Life and Adventure of Doctor Updike Underhill, Six Years a Prisoner among the Algerines*(Gainesville, Florida: Scholars' Facsimiles & Prints, 1802; 1967)에서 하였다.

17) Roger B. Stein, "Pulled Out of the Bay: American Fic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Studies in American Fiction*, 2(1974): 28.

인으로도 교양인으로도 준비시키지 못하는 교육 제도, 물질적 성취만 증시하는 세태, 영혼의 구원에도 사회의 구원에도 무관심한 껍질만 남은 교회이다. 이 모두 풍자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풍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풍자의 대상과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예를 들어 계급의 차이와 같은——Underhill에게는 그 거리가 없다. 따라서 그는 풍자의 주체이면서 풍자의 대상이 된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고전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든 “누더기를 걸친 무례하고 무지한 무리”(45)의 선생으로서든 우스꽝스러운 꼴을 당하는 것은 그 자신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미국상황에 따라 풍자라는 형식을 변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형식의 능동적인 변형이 아니라, 형식의 함정에 빠져 이런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Tyler가 피카레스크 풍자를 택한 이유는 뉴 잉글랜드의 뿔을 폭로하려는 內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형식을 숙고없이 답습해서이고, 그러다 보니 뉴 잉글랜드의 뿔을 풍자하기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소설의 배경이 남부로 바뀌면 이러한 모순이 더 뚜렷해진다. Underhill의 남부 체류談만 놓고 본다면, 그가 어느 정도 풍자의 대상과 거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풍자가 훨씬 효과적이다. 만용을 신사도의 척도로, 술주정을 남자다움의 척도로 삼는 어리석음, 설교보다는 도박에 더 흥미 있는 목사에 대한 풍자는 신랄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Underhill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규범은 그가 방금 풍자했던 북부의 그것이다. 즉 이 부분의 풍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뉴 잉글랜드의 뿔이 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Underhill이 남부에서 의사로 개업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철두철미한 양키의 본 모습을 나타낸다.

고향에서라면 내 品格을 높였을 예절바름, 신중함, 절약정신이 이곳에서는 남자답지 못한 증거로 여겨졌다. 환자를 많이 끌기 위해서는 그들과 어울리고, 놀음하고, 술마시고, 육설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다. 앞의 두 가지는 지갑이 알팍해서 할 수 없었고 뒤의 두 가지는 나의 생활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143)

Underhill이 풍자했던 뉴 잉글랜드의 속물근성, 편협성과 물질만능주의가 각각 예절바름, 신중함, 절약정신으로 바뀌고 Underhill은 풍자가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양키 도덕론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순은 미국적 경험을 유럽의 틀에 담으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일관성있게 고친 *Mr. Penrose*와 대조를 이룬다. Tyler는 풍자라는 형식을 미국의 實在에 맞게 변형했다기 보다는 그 형식에 끌려 다니다가 노예제도라는 너무나 미국적인 現實에 직면하자 피카레스크 풍자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의 노예제도와와의 연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Underhill이 알제리의 노예가 되었다고 Tyler가 피카레스크 풍자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船醫로 배를 타는 것은 Smollett의 소설에도 선례가 있고, 노예로 여러 가지 모험을 겪고 알제리아의 풍습을 풍자하고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소설의 플롯은 아니다. Tyler도 이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Underhill이 타는 배를 노예선으로 만들고, 이 사실은 Penrose가 아메리카에 남기로 한 결정만큼이나 결정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Crusoe도 알제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Robinson Crusoe*에서는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 미국적 필요에 의해 *The Algerine Captive*의 2부를 매우게 됨은 흥미롭다고 하겠다.

노예제도에 대한 Underhill의 태도는 분명하다. 그는 이 비인간적인 제도에 대한 혐오와 의분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남부를 떠난다. 그러나 현장을 떠난다고 노예제도의 존속에 대한 미국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Underhill이 船醫로 취직할 때는 노예선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은 흑인노예들의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後에 그는 본의는 아니나 노예제도의 공범이 되었던 사실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떨린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내가 後에 노예로 겪은 고통이 같은 人間이요 兄弟인 이들에게 내가 가해야만 했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속죄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Ⅱ, 110)

Underhill이 미국인으로 상징적 속죄를 하기 위해 노예가 되기 때문에 2부는 1부의 피카레스크 풍자와는 근본적으로 융합할 수 없는 포로기(captivity narrative)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1부에서 피카레스크 풍자가 결국 부정되었듯이, 2부의 포로기도 그 내용과 형식의 충분히 미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 모순에 빠진다. 이는 1부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2부의 포로기만을 따졌을 때도 그러하다.

포로기라는 장르는 바빌론 포로기에서 연원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육체적 자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다. 포로상태는 따라서 반면에 육체적 질곡에 덧붙여 영혼의 구원이 위협을 받는 곳이다. 포로기에서 인디안의 포로가 된 백인이건 백인의 노예가 된 흑인이건 육체의 주인을 악마의 화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The Algerine Captive*의 2부가 포로기로서 제기하는 문제도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Underhill은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이슬람교로 改宗해서는 안되고, 어떤 육체적 고통을 겪더라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Penrose가 선택한 아메리카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Underhill이 “변절자”(Ⅱ, 28)라고 부르는 영국인 개종자와의 비교는 의도적이다. 그가 “엄격한 국교도”(Ⅱ, 32)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데 反해 Underhill은 약속의 땅 미국을 어떠한 육체적 고통을 겪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인데, *The Algerine Captive*는 이 점이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이 약속의 땅이라면 왜 Underhill이 애초에 싫다고 떠났으며, 왜 노예제도라는 비인간적인 압제가 계속되는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Underhill을 “돌아온 탕자”로 만들어 해결한다 해도 두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다. 실제로 노예제도

라는 문제를 제기만 해 놓고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강변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모순인가.

다시 말해 포로기라는 형식적 이유를 제외하면 Underhill이 미국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 미국에서 불가능한 의사로서의 성공이 알제리에서는 가능하다는 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미국이 알제리에 비해 우월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예제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알제리의 그것이 훨씬 인간적이다. 알제리에서는 몸값을 갚으면 자유의 몸이 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데 反해, 미국에서는 몸값을 갚는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해도 노예인 사실에는 변화가 없고 노예신분과 관계 없이 인종차별을 당한다.

*The Algerine Captive*에서 Tyler는 미국과 알제리의 도덕적 대결을 회피한다. Underhill은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권하는 모슬렘성직자의 기독교비판이 너무도 설득력이 있자 대화를 중단한다. 이는 세속적인 평안보다 영혼의 구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포로기의 공식에는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노예제도라는 제기된 문제를 유야무야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믿는 것만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고, 미국이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는 땅이라는 주장은 대 전제로서도 작품內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The Algerine Captive*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1부의 피카레스크 풍자와 2부의 포로기의 상처를 흔히 거론한다. 그러나 1부에서는 풍자의 대상이 풍자의 기준이 되는 모순에 빠지고 2부에서는 포로기의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는 모순에 빠진다. 코스모폴리탄한 풍자가로 시작하여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II, 228)를 의치는 국수주의자로 변신한다는 모순은 차후의 문제이다.

*The Algerine Captive*는 실패작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비평가들이 이 작품에 주목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Americanness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序文에서 미국의 예술적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소설에서 나타나는 Americanness의 의미는 한정적이고 결국은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Tyler가 *The Algerine Captive*가 안고 있는 모순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Americanness에 집착은 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메리카는 유럽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의 땅이어야 했다. 그곳에는 정치적·종교적 압제도 없고, 계급적·인종적 차별도 없어야 했다. 이 理想을 배반하고 아메리카가 미국으로 전락했음을 형식적 모순으로 표출하는 작품이 *The Algerine Captive*이고, 이 작품이 미국적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 V. 맺 음 말

*The Algerine Captive*가 점점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미국적 작품으로 논의가 되는 반면에

*Mr. Penrose*의 성취가 인정받기는 커녕 미국문학의 canon에 넣을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는 미국문학 비평이 Tyler의 잘못을 답습하여 Americanness의 의미를 너무 국수적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Kenneth Dauber는 순전히 作品外的인 이유를 들어 *Mr. Penrose*를 미국문학에 포함시키려는 기도를 일축한다. 첫째, Williams가 미국에서 살기는 했지만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었으며, 둘째, 작품의 배경도 미국이 아닌 카브리海 연안이라는 것이다.<sup>18)</sup> 여기에 이 소설을 Williams의 친구가 改作(실제로 改惡)해서 출판한 곳도 영국이라는 사실을 덧붙여도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이민으로 이뤄진 국가의 문학을 논의하는 입장으로는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느낌은 별도로 하더라도, 미국문학에서 구축해 온 아메리카의 상징적·신화적 의미를 부정하는 자해행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지칭학적 의미에서 *Mr. Penrose*는 미국문학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메리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칸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아메리카가 아메리칸을 만든다”<sup>19)</sup>는 명제를 *Mr. Penrose*처럼 잘 구현하는 작품도 드물 것이다.

물론 *Mr. Penrose*에는 미국문학적 특색으로 지적되는 두 가지 요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個人的 내면세계를 다룬다고 보다는 사람간의 관계를 다루며, 어딘지 설명 안되는 구석이 없고 상당히 사실적이라는 점, 다시 말해 로맨스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Mr. Penrose*가 *Robinson Crusoe*와 *Of Plymouth Plantation*의 영향을 받은 과도기적인 작품이라는 대답이 가능하겠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Lawrence Buell의 지적대로 로맨스와 소설의 차이가 과장되어 왔음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sup>20)</sup>

둘째, 갈등이 없다는 점, 그리고 惡의 實在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이 소설의 장르가 유토피아라는 점으로 대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라는 장르는 이상향을 설정함으로써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소재가 현실과 이상, 과거와 현재의 괴리를 읽는 독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Mr. Penrose*에는 독자의 마음 속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음은 이미 설명했다. 인디안을 효과적으로 절멸하는 데 성공한 18세기 말 이후 인디안과의 공존을 가능성의 세계로 제시한 소설을 읽고 갈등을 느끼지 않는 독자라면 그 자신의 둔함을 탓할 수 밖에 없다.

Richard Ellison의 *Invisible Man*은 최초로 흑인을 人間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찬사를 받는다. *Mr. Penrose*가 그러한 예술적 완성을 이룬 작품은 아니나 인디안을 인간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미국소설에서 인디안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기 보다 “소리가 없는 사람”<sup>21)</sup>이다. Ken Kesey는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에서 인디안추장

18) Kenneth Dauber, “American Culture as Genre,” *Criticism*, 22(1980): 104.

19) Spengemann, *The Adventurous Muse* 38.

20) Lawrence Buell, “New Views of American Narrative: A Review-Essay,” *Texas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1977): 234-38.

21) Geoffrey Rans, “Inaudible Man: The Indian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White Fiction,” *Canadi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8(1977): 103-15.

이 병어리 행세를 하도록 만듦으로써 이 점을 꼬집는다. 그러나 *Mr. Penrose*에서는 이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인간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Penrose가 그의 두번째 부인에게 이브를 유혹한 뱀의 이야기를 해 주자 그녀는 유럽의 신화가 아메리카의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 하면서 여자에게서 타락이 시작했다는 신화를 부정하는 재치까지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그려진다.

*Mr. Penrose*의 아메리카가 미국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신대륙의 가능성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미국작가들은 미국보다는 항상 아메리카의 의미를 추구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떠나야 했다. Melville과 Poe의 작품이 미국 안에서 보다 밖에서 일어나며 Hawthorne이 현재보다 타락의 근원인 청교도 과거로 되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세기에 와서는 퇴색한 아메리카이긴 하지만 초기 미국문학을 연구하는 입장 으로서는 아메리카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의 타락의 역사를 재조명 해 봐야 할 것이다.